

CASE. 02

교육기관 거점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시스템 "우윳빛깔 종이팩 프로젝트"

- 쓰맘 쓰맘 -

(2020.12~현재)

요약

<우윳빛깔 종이팩 프로젝트>는 포항시에서 종이팩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지 않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종이팩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곳(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카페등)에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하여 제지회사로 바로 보내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현재까지 총 24개 기관에 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6개월동안 종이팩을 수거하고 운반하고 또 홍보하기 위해 지역내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인근 울산, 경주, 김천등에서 본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은 활동가들에게 수거함을 무상배포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시켰으며, 올해부터는 기관(포항시자원봉사센터)과 협업하여 확장시켜갈 계획이다.

특히, 본 프로젝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수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타 지역의 종이팩 활동과 차별화되는데, 수거함 설치와 함께 환경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수거거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자연스럽게 환경적 실천을 습관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목적/배경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종이팩 대량 발생기관에서의 재활용 방안 찾기_ 생활밀착형 환경이슈 착안>

쓰맘쓰맘은 2020년 12월 부터 종이팩이 대량 발생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카페 등에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직접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하며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중한 자원인 종이팩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작은 우연한 계기였다. 어느 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급식 식단표를 확인해보니 월 평균 10회 정도 우유 또는 두유를 간식으로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달리 고급 천연 펄프로 만들어 지므로 재활용되면 질 좋은 휴지로 재탄생되어 일상생활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종이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 본 활동의 시작이었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분리배출 방법은 다양했다.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하는 곳, 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곳, 납품처에서 회수하는 곳 등 그 처리 방법이 제각각이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의 종이팩 재활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자체의 관련 기관(시청 관련 부서 및 공공재활용선별장)을 인터뷰하고, 시민들에게 설문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자자체가 하기 어렵다면 시민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종이팩과 종이는 따로 분리하여 종이와는 다른 재활용공정을 거쳐야 종이팩은 재활용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별도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률이 낮은 실정이었다. 그래서 인천, 청주, 대구, 천안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우윳빛깔 종이팩 재활용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이팩 수거보상제로 종이팩을 모아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휴지나 종량제 봉투 등으로 교환해 주면서 종이팩 재활용을 독려한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러한 보상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는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어 종이팩이 일반 폐지들과 섞여서 배출되므로 양질의 종이팩 수거량은 극히 적었다. 그래서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회사에서도 이를 자원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생협에서도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협 이용자들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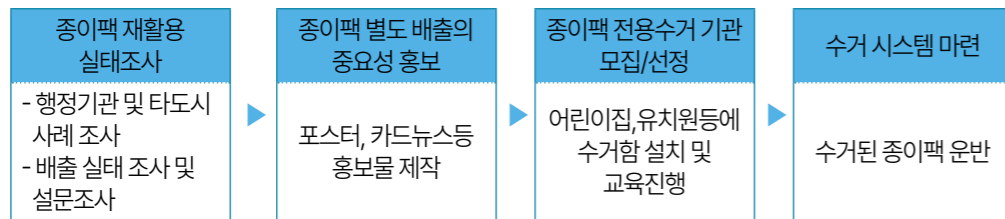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포항시에는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어서 종이팩 수거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잘 모아진 종이팩을 보낼 곳조차 없었던 것이었다.

쓰맘쓰맘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용 수거함 설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린이 집, 유치원을 거점 수거지로 지정하여 기관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을 모으고자 했다. 각 가정에 종이팩 별도 배출의 중요성과 배출 방법을 알리는 포스터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동참을 유도했다. 이로써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종이팩도 어린이들이 등원하면서 전용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외에도 수거함을 외부에 둘 수 있는 카페 또한 거점 수거지로 지정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을 수거하였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종이팩 거점 수거지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제대로 분리배출된 종이팩을 다량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종이팩의 양이 꽤 늘어나 포항시나눔자활센터와 협업할 수 있었고, 일정 기간 자활센터에 보관 후 동신제지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을 시작했다.

내용(추진절차, 추진방법, 추진주체별 역할)

1) 추진절차



2) 추진방법

<1단계: 실태 조사>

우리 지역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 포항시 자원순환과 공공재활용 선별장에서의 선별 현황 파악
 - 일반 시민대상 현재 종이팩 배출 방법 설문 조사
 - 상가 및 주택가에 위치한 보육시설에서의 현재 종이팩 배출 방법 조사
- 위 조사를 통하여 종이팩 별도 배출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매우 한정적임을 확인하였다.

<2단계: 종이팩 별도 배출의 중요성 알리기 캠페인>

종이팩 별도 배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 및 카드뉴스 제작



SNS, 지역 커뮤니티 및 자원 중인 자녀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극 홍보 하였다.

더불어 타도시의 종이팩 재활용 우수사례 및 시범사례 소개하고 우리 지역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3단계: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기관 제안 및 공개 모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간식으로 제공된 우유, 주스, 두유 등의 종이팩 별도 배출 필요성을 설명하고 [포항시 립니하오어린이집/동산유치원] 두 곳에 제안하여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 후 지역 커뮤니티와 쓰맘쓰맘 SNS를 통하여 공개 모집을 진행하였고 점차 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카페 등 총 24곳이 참여하게 되었다.

<4단계: 수거 시스템 마련>

잘 모아진 종이팩을 재활용이 가능한 제지 공장으로 보내어 재활용 될 수 있게 수거된 종이팩은 바로 제지 공장으로 갈 수 있게 하였다.

기존에 없던 수거 시스템을 자원봉사자와 여러 기관이 협업하는 체계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완성하였다. 각 가정이나 어린이집, 카페에서 나오는 종이팩은 수시로 배출하고 쓰맘쓰맘과 자원봉사자들이 격주로 거점 수거지를 방문하여 포항자활센터로 운반한 후 창고에 적재하면 한 달에 한 번 동신제지에서 수거하여 공장으로 가지고 가는 방식이다.



3) 추진주체 및 역할

본 활동의 추진 주체는 3분야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 <쓰맘쓰맘>은 '우윳빛깔 종이팩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두고 각 가정과 보육기관에서 모아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며, 여러 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이어 가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방문 수거 활동과 함께 환경 교육을 진행했다.

두 번째, <참여 어린이집 /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발생한 종이팩을 재활용 가능하도록 씻고, 펼치고 말려 수거함에 배출하고, 각 가정에서도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연계기관 포항자원봉사센터 / 포항나눔자활센터 >포항자원봉사센터는 참여하는 어린이집 수가 늘어날수록 종이팩 수거 인력 확보가 필요했는데 쓰맘쓰맘과 함께 수거활동을 할 자원봉사자 모집에 힘을 보태어주었다. 또한 다량으로 모아진 종이팩은 제지회사에서 가져가기까지 적재할 공간이 필요한데 나눔자활센터의 창고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포항나눔자활센터에는 기존에 커피박 재활용을 위해 커피박을 수거하던 카페중에서 본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종이팩을 함께 모아 동신제지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주요 특징

<종이팩 수거 거점 역할>

우리지역에서 종이팩은 상가/공동주택/일반주택에서 모두 종이류와 함께 배출하여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별도의 수거함도 없었던더러 지자체 자체보상제도 또한 없는 실정이다. 쓰맘쓰맘의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발생된 종이팩도 매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통하여 별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또한 학부모가 카페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종이팩도 어린이집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시하여 종이팩을 모으는 활동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종이팩 별도 배출이 생활습관화 되도록 하였다.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13번 기후변화와 대응>

종이팩 대량발생 기관 별도 분리배출 시스템 모델 제시

종이팩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종이로 섞여 버려지거나 일반쓰레기로 버려진 것들을 따로 수거하여 자원화하는 우유팩의 별도 분리배출 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각 가정의 종이팩을 거점수거지로 개인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배출하고 거점수거지에서 종이팩은 격주에 한번 자원봉사자의 힘을 보태어 별도의 적재공간(포항나눔자활센터)로 운반한 후 한달에 한번 제지회사(동신제지)에서

종류	수량	중량	면적	비율
우유팩	27만 5천개	27만 5천kg	27만 5천㎡	27만 5천%
종이팩	27만 5천개	27만 5천kg	27만 5천㎡	27만 5천%
합계	55만 0천개	55만 0천kg	55만 0천㎡	55만 0천%

한달까지 모은 양 526.9kg (16,106개)
적은 양이 526.9kg 이상을 달성합니다.

가져가는 효과적인 수거시스템이다.

7개월(2021년 5월~11월)동안 참여한 8곳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만 수거한 종이팩량은 약 526.9kg(16,106개)에 달한다.

<4번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종이팩 거점수거지 역할을 하는 지역 어린이집에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유아기부터 환경감수성 증진 및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했다. 각 가정에는 통신문과 언어전달을 통해 종이팩의 재활용 실태를 알리고 직접 자원화에 실천하도록 부모님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거점수거지에서 종이팩을 수거해주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자원재활용'과 '자원 순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12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자신이 먹고 소비한 후 배출되는 것이 어떻게 버려지고 재활용 되는지를 인식하게 된다. 소비시 자신을 뒤돌아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소비의 실천적 한계점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생산을 요구하는 환경적 실천행동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한 가정의 아내, 주부, 엄마의 역할을 하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쓰맘쓰맘은 일상 속에서 맛달뜨린 지역의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개선해보고자 좌충우돌 활동하는 자발적 지역공동체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내에서 이웃과 공감하며 연대해 나아가고 있다. 환경적 경각심과 금금증으로 시작된 우윳빛깔 종이팩 프로젝트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이 직접 이웃들과 함께 활동하고 그들이 먼저 기관의 문을 두드려 함께 협업하며 프로젝트를 꾸려나가는 능동적 문제해결형의 공동체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향함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2) 사례의 파급력(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행하게 할 수 있는가?)

'우윳빛깔 종이팩 프로젝트'는 버려지는 질 좋은 자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된 활동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원 선순환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포항지역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경주, 김천, 울산 에서 종이팩활동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활동가분들에게 수거함과 직접 제작한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제공하고 함께 소통하며 문화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다.

또한 전국의 종이팩 활동가분들과 반상회라는 이름으로 줌미팅을 실시하거나 그룹톡으로 정보를 나누고 애로사항등을 소통하였다.

종이팩 수거활동은 쓰맘쓰맘만의 활동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만 가능한 활동이다. 거

점에서 모아진 종이팩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뜻을 함께하는 여러명의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포항나눔자활센터는 종이팩을 적재할 공간과 수거차량을 내어주는 쓰맘쓰맘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자원순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올해는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쓰맘쓰맘과 협력하여 지역내 우윳빛깔 종이팩 프로젝트를 확산시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종이팩 재활용률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고, 지역에서 시스템화하여 실현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모델을 제시한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시적 일회성 활동에서 벗어나 1년 6개월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더 나아가 자원봉사기관과 협력하여 그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 큰 성과이다. 기존 재활용 수거 시스템으로는 종이팩만 별도로 수거하는 체계 확립이 쉽지 않은데 따로 거점 수거지를 두고 제지공장으로 보내는 모델은 효율면에서 포항시 자원순환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종이팩 자원순환은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활동의 주체인 쓰맘쓰맘뿐만 아니라 거점수거지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카페 그리고 협력하는 자활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종이팩 활동이외의 다른 환경실천 활동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개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쓰맘쓰맘)가 시초가 되어 교육기관, 지역사회기관이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는데 의의가 크다.

또한 거점수거지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환경적 가치관 및 생활습관 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이외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문의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는 일부 참여하는 곳에서만 종이팩을 별도로 배출하고 있기때문에 전체 재활용률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공공주택, 상가 등 일괄적으로 종이팩 별도 배출함을 설치하고 공공선별장에서 종이팩을 별도 선별토록 하거나 재활용 용이한 수거 및 분류체계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쓰맘쓰맘은 2021년 7월 지자체의 자원순환과 담당자와 자리를 마련하여 본 활동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적 제안을 했다. 당장 포항시에서 실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고, 그로 인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곳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알리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기에 노력할 것이다. 쓰맘쓰맘은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작지만 힘있는 사회 변화 촉구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단순한 1년 내의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우윳빛깔 종이팩 프로젝트'는 2020년 12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차츰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쓰맘쓰맘이 구축한 종이팩 전용 수거시스템은 수거과정별로 각자가 맡은 짧은 역할을 수행하면 어려움이 없이 재활용 될 수 있는 단계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과정별로 과부하 없이 영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수거거점지가 확장되더라도 무리없이 확대시킬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주로 종이팩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는 환경교육과 환경적 실천이 함께 병행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평가된다.

- 활동 동영상 링크 ·
- 우윳빛깔 종이팩 프로젝트 활동 로그 영상
<https://youtu.be/-qll0LFGTJ0>
- 참여 어린이집에 보내는 감사영상
<https://youtu.be/QKHeGD9RAV8>

응모 사업에 해당하는 K-SDGs 17개 목표 선택 (중복선택 가능)



활동 사진

어린이집에 수거함 설치



각기관 방문 종이팩수거 및 추합



간식으로 마신 종이팩 넣는 아이들 모습



가정에서 발생된 종이팩 넣는 어린이



포항시립니하오어린이집 환경 교육 현장



동산유치원의 가득 모아진 종이팩



포항시 자원순환과 담당자 미팅



울산 "하자맘" 마을공동체팀
(그외 김천, 경주 등 타지역계 수거함을 제공하고 연대함)



종이팩을 가져오면 휴지로 교환하는
캠페인 실시



2022년 쓰담쓰담과 포항자원봉사센터는
공동협력하여 종이팩 캠페인을 진행함.

